

심훈 『상록수』에 나타난 노동서사와 순교서사의 경합

이 가 은*

요약

심훈의 장편소설 『상록수』는 두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신’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두 서사 플롯의 교차로 이루어져 있다. 박동혁의 서사는 노동서사 마스터플롯을 따르는데, 이는 시련을 통해 계급적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식을 얻는 노동자 또는 지식인의 성장서사이다. 동혁은 여러 시련을 겪으며 ‘경제운동’에 대한 인식을 획득한다.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에 따르면 채영신의 죽음은 ‘문화운동’의 한계를 보여 주는 ‘실패’이자, 박동혁이라는 노동자 지식인이 성장하게끔 해 주는 시련으로 작용한다. 채영신의 서사는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과 유사점이 있는데, 이는 수정 또는 비혼을 추구하며 시련을 극복하여 단련하고 그 끝에 순교라는 죽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영신은 동혁과의 사이에서 끝내 결혼하지 않고, 공권력의 압박, 부모의 혼인 강요, 자신의 질병, 그리고 동혁의 신앙 비방 등의 시련을 견뎌내고 끝내 죽음을 맞는다.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으로 보았을 때 채영신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오히려 끝내 달성하고자 했던 ‘순교’라는 목표 지점으로 읽힌다. 두 플롯은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하지 않고, 오히려 ‘경합’한다. 각각의 플롯은 상대 플롯을 자기화하여 재해석하지만, 어느 쪽이든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되지 않는 균열을 남긴다.

주제어: 심훈, 상록수, 노동서사, 순교서사, 마스터플롯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서론
2. 노동서사 - '박동혁'
3. 순교서사 - '채영신'
4. 플롯의 결합 또는 경합
5. 결론

1. 서론

심훈의 대표작인 장편소설 『상록수』는 이광수의 『흙』과 함께 1930년대 전반 언론기관 주최의 농촌계몽운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농촌계몽소설로 이야기되어 왔다. 실제로 『상록수』는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한 『동아일보』에서 “朝鮮農漁山村文化에의 寄與”¹⁾라는 목적으로 주최된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농촌의 삶과 문화를 계몽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다.

『상록수』의 두 주인공인 박동혁과 채영신은 농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각각 한국리와 청석골이라는 농촌에 내려가 야학을 비롯한 여러 일에 헌신한다.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농촌 운동을 응원하지만, 끝내 영신은 과로로 인해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이한다. 영신의 장례를 마치고 한국리로 돌아간 동혁이 한국리에 자라난 ‘상록수’를 바라보며 새로운 운동을 해 나갈 희망을 갖는 것으로 소설은 막을 내린다.

『상록수』는 1935년 9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15일까지 128회²⁾에 걸쳐 연재되었다. 현상공모가 처음 신문지상에 공지된 것이 1935년 3월 말경이

1) 「장편소설 특별 공모, 본보 창간 15주년 기념, 『동아일보』, 1935년 3월 20일.

2) 지면상의 최종회는 127회(1936년 2월 15일)이지만, 115회가 두 번(1936년 1월 30일, 1936년 1월 31일) 중복되어 있으므로 실제 연재 회수는 128회이다.

었고 응모 기한은 6월 말까지였는데,³⁾ 작품의 창작 시기도 이와 동일할 것이다. 작가 본인이 “늦인 봄철에 한 五十日동안을 晝夜兼行으로 펜을 달려”⁴⁾ 작품을 완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시기는 1935년의 만춘(晩春) 즉 음력 3월 무렵의 두 달가량(양력 4~5월)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이 창작 및 발표된 1935년의 텍스트적 배경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신문사들의 농촌계몽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1929~1934)과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1931~1934)이 그 대표적인 농촌계몽운동이다. 『동아일보』에서 연재되었던 『상록수』는 이 광수의 『흙』과 더불어 이른바 브나로드 운동의 이념을 소설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백철이 “《흙》과 《常綠樹》는 이 브나로드 운동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우수한 작품”⁵⁾이라 평한 것이 대표적이며, 『상록수』에 대한 이후의 연구도 상당 부분 이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상록수』에 대한 비판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김경연은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이 “실력양성을 통한 점진적 독립을 주장한 민족주의 우파 진영”⁶⁾이었음에 착목하여, 『상록수』가 우파 민족주의의 논리인 개조·갱생 담론을 이어받고 있으며,⁷⁾ 나아가 농민들을 민족 내의 타자로 설정하여 이를 계몽을 통해 ‘식민화’하는 등 파시즘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한다.⁸⁾

그러나 『상록수』를 브나로드 운동의 이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읽

3) 「장편소설 특별 공모, 본보 창간 15주년 기념」, 앞의 글.

4) 「본보창간 15주년 기념 공모 장편소설 심훈 작 『상록수』 청진 화(畵) 9월 10일부 석간부터 연재」, 『동아일보』, 1935년 8월 27일.

5) 백철,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86, 395면.

6) 김경연, 「1930년대 농촌·민족·소설로의 회유(回遊) - 심훈의 『상록수』론」, 『한국문학논총』 48, 한국문화회, 2008, 196면.

7) 위의 글, 203-203면.

8) 위의 글, 211-212면.

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상록수』가 연재된 1935년은 이미 두 운동이 종료된 이후였다는 점, 브나로드 운동과의 이념적 차이를 소설 속 인물의 입으로 역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브나로드 운동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으로 읽은 류양선의 견해⁹⁾를 참고할 만하다. 류양선은 소설 속 박동혁이 ‘XX고등농림 학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운동으로부터 경제운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운동>경제운동>정치운동’의 단계로 계획된 수원고등농림 학생들의 독립운동(1925~1941)을 암시하여, 이 점에서 『상록수』가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 한편 최은혜는 박동혁이 “언론사를 주축으로 하는 계몽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교묘히 노출”하게 함으로써 『상록수』는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을 비롯한 “시혜적 문화운동”을 비판했다고 보았다.¹¹⁾ 『상록수』를 민족주의 진영의 농촌소설로서 이광수의 『흙』과 함께 묶는 전통에서 벗어나, ‘식민지 사회주의 농촌소설’로서 이기영의 『고향』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이처럼 『상록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견해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은 모두 박동혁의 서사만을 기준으로 소설을 읽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한계를 갖는다. 즉 『상록수』가 두 명의 주인공을 각각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그중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9) 류양선, 「《상록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4, 한국현대문학회, 1995, 9-10면.

10) 위의 글, 16-19면.

11) 최은혜, 「식민지 사회주의 농촌소설에서의 주체와 공동체 『고향』과 『상록수』 겹쳐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85, 2021, 223면.

12) 위의 글, 224면.

	박동혁 (한곡리)	채영신 (청석골)
1장 쌍두취행진곡	간담회장에서 만나 함께 농촌	운동을 하자고 말한다.
2장 일적친금	한곡리에 영신이 정양차 찾아 온다.	
3장 기상나팔	농우회관 지을 돈을 모은다.	
4장 가슴속의 비밀	농우회 일에 참견하는 기만을 비판한다.	
5장 해당화 필 때	삼 년간 각자의 일터를 세워	후진들에게 맡긴 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다.
6장 제3의 고향		주재소의 명령으로 강습소 아이들 중 오십 명을 돌려보낸다.
7장 불개미와 같이	농우회관을 짓는다. ¹³⁾	학원을 짓기 위해 기부금을 받다가 구류된다.
8장 그리운 명절		추석 학예회로 기부를 받아 학원을 짓는다. 김정근과 결혼하라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한다.
9장 반가운 손님	낙성식 도중 영신이 맹장염으로 쓰러져 입원한다. 영신과 동혁은 앞으로의 사업을 논의한다.	
10장 새로운 출발	기전을 찾아가 농우회원들의 빛을 해결한다.	
11장 반역의 불길	동화가 회관에 불을 질러 동혁이 잡혀간다.	
12장 내 고향 그리워		일본 유학 중 병을 얻어 청석골로 돌아온다. 동혁과의 결혼을 단념하리라 결심한다.
13장 천사의 입종		병원에서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14장 최후의 한 사람	영신의 장례 후 '경제운동'이 시급함을 깨달아 한곡리로 돌아간다.	

13) 7장의 전반부는 채영신(청석골)의 이야기이며 후반부는 박동혁(한곡리)의 이야기이다.

『상록수』는 전체 14장의 이야기를 전개하며 2~3장마다 박동혁과 채영신을 번갈아 초점화자로 삼아, 두 인물의 행적 및 심리를 모두 심도 있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두 인물 중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다뤄지는 것은 거의 박동혁뿐이다. 채영신을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두 인물을 함께 분석하더라도 채영신은 박동혁의 비교 대상으로서 “농촌활동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궁극적으로 실패”한 인물로 다루어 왔다는 것이다.¹⁴⁾ 두 개의 서사 중 채영신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죽음으로 종결되고 마는 것은 박동혁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가능성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 것으로 논해져 왔다.¹⁵⁾ 이는 작가가 소설 속에서 죽음으로 채영신을 퇴장시키고 박동혁을 ‘최후의 한 사람’¹⁶⁾으로 지목한 것에서 이미 예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이 곧 실패를 함의하는 것으로 읽는 것조차 어찌면 특정 플롯에 치우친 독해 결과인지 모른다.

『상록수』는 두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며, 나아가 각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개의 이질적인 ‘마스터플롯’의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스터플롯이란 특정 문화 속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스토리들의 뼈대를 가리킨다.¹⁷⁾ 이를테면 영웅 서사, 신데렐라 서사, 복수 서사 등이 대표적인 마스터플롯의 예가 될 것이다. 마스터플롯은 문화 속에서 반복되어 온 서사의 문법이기 때문에, 문화권 내의 독자들이 그 서사를 해석하는 데에 단초가 된다. 즉 마스터플롯에 따라 서사를 읽거나 쓰고자 하는 무의식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14) 구수경, 「沈熏의 「상록수」考」, 『어문연구』 19, 어문연구학회, 1989, 445면.

15) 최은혜, 앞의 글, 224면.

16) 『상록수』의 마지막 장인 14장의 제목이다. 『상록수』는 1장 ‘쌍둥이행진곡’으로 시작하여 14장 ‘최후의 한 사람’으로 막을 내린다. 박동혁과 채영신이라는 두 머리의 독수리의 행진으로 시작하여, 최후의 한 사람인 박동혁만이 남는다는 전개가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경연, 앞의 글, 216면.)

17)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448면.

『상록수』에는 한국 근대문학사에 흐르는 두 가지의 마스터플롯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는 ‘박동혁’의 서사를 구축하는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이며, 둘째는 ‘채영신’의 서사를 구축하는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이다. 노동서사의 전통은 러시아혁명으로부터 출발하여 1920-30년대 한국 근대문학을 풍미한 프로문학에서 1980년대 노동해방문학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다.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이 갖는 구조적 특징은 노동자(또는 지식인)가 시련을 극복하며 계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계급과 인류 전체를 위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¹⁸⁾이라 할 수 있다. 『상록수』는 앞서 보았듯 우파 민족주의 계통의 농민문학이었다고 흔히 지적되어 왔으나, 이 소설이 발표된 1935년은 프로문학의 전통 역시 강하게 흐르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는 심훈의 이력과도 관련이 깊다. 심훈은 1923년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을 내세운 염군사에 가담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1925년 염군사와 파스쿨라(PASKYULA)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의 창립멤버이기도 했다. 물론 심훈은 카프의 창립 이듬해에 자진 탈퇴하며 계급문학운동 진영으로부터 이탈하고 있으므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의식을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의 작품 속에서 노동하는 인물들에 대한 애정과 계급적 저항의식을 읽어낼 수 있으므로 심훈과 그의 작품들 또한 노동서사의 자장 아래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상록수』는 『영원의 미소』(조선중앙일보, 1933.7.10.-1934.1.10.)의 후편으로 예고된 바 있는데, 이는 인텔리 노동자 청년의 계급적 저항 의식과 귀농 모티프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영원의 미소』가 파렴치한 지주계급의 비인간적인 횡포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다가 귀농하여 농촌 사업에 애쓰는 것으로 결말부를 맺었다면, 『상록수』는 이를 이어받아 귀농 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원의 미소』보다는 다

18) 유기환, 『노동소설, 혁명의 요람인가 예술의 무덤인가』, 책세상, 2003, 95-96면.

소 약화되어 있지만 『상록수』에도 비도덕적인 지주계급(강도사, 한남청)에 대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박동혁이 한국리 마을 청년들과 함께 농우회를 결성해 함께 노동하며 지주계급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서사의 전통과 관련지어 읽게 만든다.

한편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은 보다 이전의 다양한 문헌 양식들로부터 이어져 온다. 한국 천주교 전래사는 순교의 역사라 할 만큼이나 대대적인 박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수난을 증언하는 문헌들이 한 전통을 이룬다. 18세기 말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이는 곧 신해박해(1791), 기해박해(1839), 병인박해(1866) 등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져 수백 명의 공식적·비공식적 순교를 낳았다.¹⁹⁾ 이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는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을 비롯하여 『기해일기』, 『치명일기』와 같은 순교자 전기,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와 같은 서신 자료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소간의 유사한 마스터플롯을 형성하고 있다. 순교서사 중 여성 순교자 서사의 구조적 특성은 수정(守貞) 맹세와 순교 결심을 가진 인물이 여러 시련을 통과하며 수양하고 극기하여 끝내 죽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만 본고는 채영신이 종교적 의미의 '순교'를 행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채영신의 서사가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 것임을 밝혀 둔다.

『상록수』와 순교서사의 관련성은 노동서사의 영향에 비해 시기적으로도 작가 이력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작가 심훈 본인이 개신교 신앙 기반의 환경에서 성장했던 점²⁰⁾도 무관하지는 않

19)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5면.

20) 심훈의 작은 형인 심명섭이 개신교 감리회 소속 목사였다. (최은혜, 앞의 글, 239면.) 최은혜는 심훈의 신앙적 바탕과는 별개로 “『상록수』에서 드러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명백하여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박동혁이라는 한 인물의 시각을 곧 내포저자의 시각이자 작품 전체의 시각으로 등치한 결과로 보인다. 『상록수』는 박동혁 못지않게 채영신에게도 공평한 지면과 관심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기독교적 희생과 헌신이 감동적으로

겠으나,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것은 『상록수』가 ‘모델소설’로 쓰여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 소설에서 그려내고 있는 인물과 사건들은 모델 인물과 그들이 겪은 실화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서사의 중심 인물인 박동혁은 심훈의 조카이자 농촌운동가인 심재영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²¹⁾ 순교서사의 중심 인물인 채영신은 기독교 기반의 농촌운동가 최용신을 모델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용신은 작품 속에서 그의 전기의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실존 인물로서, 당시 언론에서 이미 그 생애가 보도되어 ‘지상의 천사’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의 독자들은 누구나 이 작품을 읽으며 최용신의 삶과 죽음을 함께 떠올렸을 것이다. 이 점에서 『상록수』는 순교서사의 전통이 갖는 ‘수난의 증언’의 전통을 유사하게 따르고 있다.

박동혁의 서사와 채영신의 서사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의 이야기로 화해되거나 결합되지 않는다. 이는 곧 각각의 마스터플롯에 해당하는 두 개의 독법을 필요로 함을 뜻한다. 플롯을 고려하여 각 인물의 텍스트를 분리하여 읽을 때 어떠한 의미가 발견될지, 더하여 이러한 구조의 접맥 속에서 각각의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의 텍스트를 자기 텍스트화하는지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지고 있다. 심훈이 최용신의 기사에서 감명을 받아 『상록수』를 구상한 점, 당시에 최용신이 이미 “무산아동의 자모”(『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27일)이자 “샘골의 천사”(『중앙』, 1935년 5월 1일)로 칭송받는 존재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록수』 전체가 기독교 비판의 논조로 쓰여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 21) “심재영은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청년 12명과 함께 공동경작회를 만들었으며 1935년 야학당인 상록학원을 세웠다.”(유진월, 「심훈의 저항과 계몽, 이용후생의 한 방식」, 『우리문학연구』 69, 2021, 507면.) 한편, 박동혁의 모델이 심재영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부곡리에서 야학을 진행한 ‘박동선’이며, 심재영의 행적이 과장 또는 심지어 날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박경미, 「심재영 스스로 ‘상록수’ 실존인물 주장하고 다녀」, 『오마이뉴스』, 2018년 12월 31일.) 다만 이 부분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고자 한다.

2. 노동서사 - ‘박동혁’

『상록수』의 두 가지 서사 축 중 박동혁의 서사를 먼저 살펴보자. 이때까지의 『상록수』 연구의 상당수가 박동혁의 서사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으므로, 본고는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플롯을 분석하는 데 집중해 보려 한다. 즉 박동혁의 서사가 ‘노동서사’의 전형적인 마스터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동혁은 농촌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열망으로 고향인 한곡리에 내려와 농우회를 조직해 농촌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인물이다. 그는 비록 자진 퇴학하긴 했으나 ‘○○고등농림’을 다닌 인텔리인데, 작품 속에서 그가 인텔리임을 드러내는 장면은 그리 많지 않다. 한곡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이는 채영신의 이야기에 비하면 그 비중이 거의 눈에 띄지 않으리만치 작다. 동혁의 이야기는 주로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 용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하다못해 이발 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담배를 끊고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²²⁾는 농우회 활동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는 곧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답을 경작하고 회관을 짓는 ‘노동’에 직결되는 것이다.

동혁의 이야기는 농우회관을 짓는 데 성공하는 7장을 전후하여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부의 이야기에 협동과 노동을 통한 성취가 주로 나타나고 있다면, 후반부에 들어서는 시련들을 맞닥뜨리며 전반부의 성취의 불완전성을 확인하게 만든다. 시련의 순간순간마다 동혁은 ‘경제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의 서사는 노동서사의 구조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이다. 노동서사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 것으로는 유기환의 연구를 참조할 만 한데, 그는 프랑스, 러시아, 미국, 한국의 각각 다른 자본주의적 환경 속

22) 심훈, 『상록수』 24회, 『동아일보』, 1935년 10월 8일.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회차, 발표일자)로 표기.)

에서 형성된 노동소설의 구조적 유사성을 논하며 노동소설의 공통된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공통된 구조가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의 논의 중 성장서사로서의 노동서사의 구조적 특성을 차용하려 한다.

노동서사의 구조적 특성을 다루기에 앞서 그 기반이 되는 성장서사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하일 바흐친은 ‘완성된 주인공’과 ‘성장하는 주인공’을 구별하였는데, 이 중 성장하는 주인공은 서사의 내적 구조에서 가변 차원으로, 시간이 주인공의 삶과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²³⁾ 시간에 따른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라는 성장서사의 구조는 수잔 슬레이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진실에 대한 무지—시련(들)의 극복→진실에 대한 인식→진실에 따른 새로운 삶
수동성—————→가치 있는 행동²⁴⁾

성장서사는 ‘무지’ 상태의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진실을 인식’하는 상태로 성장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구조를 띤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장서사에는 진실 인식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인식에 따른 ‘수혜자’가 모두 주인공이라는 ‘개인’으로 통합되는 반면, 노동서사의 경우에는 보다 ‘집단성’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²⁵⁾ 즉, 일반적인 성장서사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인식함으로써 성장하며, 이는 주인공 자신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노동서사에서 주인공은 개별적 자아뿐 아니라 계급과 세계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류 전체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결과로 나아가는 것이다.²⁶⁾ 슬레이만은

23) 유기환, 앞의 책, 89면.

24) 위의 책, 93면.

25) 위의 책, 93-95면.

26) 위의 책, 95면.

어떤 특별한 스토리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의 특별한 구조화가 테제소설을 만든다고 설명했는데, 노동서사는 대체로 이와 같은 구조를 내재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테제를 공고히 한다.²⁷⁾ 노동자 인물이 시련들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수련을 받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눈을 뜨게 되거나, 지식인 인물이 시련들을 통해 실천적 수련을 받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이라 할 수 있다.

『상록수』의 박동혁은 지식인 인물로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와 식민지 조선 농촌의 현실에 대한 주관을 이미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그 지식이 실제 현실을 맞닥뜨리지 못했다가 실천의 한계에 부딪히며 시련을 겪은 후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다. 동혁이 실천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시련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 ① 동지이자 연인인 영신의 입원
- ② 동지 김건배의 배신
- ③ 동생인 동화의 방화로 경찰서에 수감됨
- ④ 동지이자 연인인 영신의 죽음

이 네 가지의 시련을 맞닥뜨릴 때마다 동혁은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며 차츰차츰 농민 운동의 실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눈을 뜬다. 그것은 ‘돈’과 ‘밥’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기반이 된 후리야만 계몽도 문화운동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① 그는 하도일이급하니까 자동차삿이나 병원에서 들것은(설마 어쩌케 든지 되겠지)하고 닥치는대로 떼거리를 쓸 작정으로, 영신을 업고 나섰던 것이다. 그는 그때에 처음으로
(왜 내가 돈이없었든가)

27) 위의 책, 96면.

하고 돈잇는 사람이 부러워서 탄식을 하였었다. (81회, 1935년 12월 17일)

② 「결국은 한그릇의 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 한다. 더군다나 “농민은 먹는것으로 하늘을삼는다”고 옛날부터 일러 내려오지 안혔는가」

이것이 흔들여 볼수없는 철칙(鐵則)인이상, 이제까지는 그 철칙을 무시는 하지안엇슬망정, 첫손가락을 꼽을만치 중대히 생각을 하지안엇든것만은 스스로부인할수없었다.

(그것은 나자신이 농촌의 태생이면서도 아직까지 밥을굵어보지못한 「인테리」 출신인 까닭이다.)

하고 동혁은 저자신을 비판도 해보았다.

(…)

(이번 기회에 영신에게도 선언한것처럼 제일보부터 다시 내드디지 안흐면 안된다! 표면적(表面的)인 문화운동(文化運動)에서 실질적(實質的)인 경제운동(經濟運動)으로→) (89회, 1935년 12월 27일)

③ 인제야 취조가 일타락이 저서 편지를 할수있게되엿소이다. (…)
나는 아직 수신대학분과에는 입학할 자격을 얻지 못하였으나, 예과에서도 보통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할수없는 공부를 하고 잇는것을 다행으로 녀깁니다. 「수양하고 반성하고 싶은자는 다 이리오라」하고 외치고 싶소이다. 몸은여전한데 하루 세끼 조막덩이만한 콩밥이 겨우 간에 기별만해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안는것만이 불평이외다. (115회, 1936년 1월 31일)

④ 이튿날아침 동혁은 산소로올러가

「당신이 못다한일과 두목을 하겠다」

고 맹세한것을 이제로부터 실행하겠다는말을 다시 한번자신있게 한뒤에, 뺨 돌아서 그길로 내쳐 걸어 한곡리로 향하였다. (…)
어느곳에를 가나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계몽적인 문화운동도 해야 하지만 무슨일에 든지 토대가 되는 경제운동이 더욱 시급하다」는것을 역설하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125회, 1936년 2월 13일)

①은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진 영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나서던 중 학부형들의 병원비 추렴을 받은 후 동혁이 가진 생각이다. 이때까지는 아직 ‘돈’의 필요성을 막연히 느낄 뿐, 그것이 그 자신의 실천과 관련지어 생각되지는 않았다. ②는 처음부터 농우회 일을 함께 해온 든든한 동지였던 김경배가 동혁이 없는 사이에 농우회관을 마을의 지주인 부르주아 강기천에게 팔아버린 것을 안 후에 동혁이 한 생각이다. 경배의 배신은 어린 자식들을 차마 더는 굶기지 못해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한 그릇의 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밥’이 먼저 주어지지 않는 한 문화적 계몽은 가능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동혁은 ‘경제운동’의 필요성을 분명히 깨닫는다. 나아가 동혁은 부르주아 기천과 대결해 농우회 청년들의 빛을 청산하는 다소간의 승리를 얻기도 한다. ③은 동생인 동화가 기천에게 팔려버린 회관을 불태우고 도망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동혁이 경찰서에 수감된 후 영신에게 처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농담처럼 유쾌하게 쓰고는 있으나, 여기서 동혁은 스스로 배고픔을 느끼며 ‘밥’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④는 영신이 죽은 후 “당신이 못 다한 일”을 하리라는 결심으로 한국리로 돌아가는 길에 동혁이 가졌던 생각이다. 이때 동혁은 ‘경제운동이 시급함’을 명확히 인식할 뿐 아니라 이것을 한국리 주변 마을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진파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박동혁은 위와 같은 네 가지의 시련을 거치며(극복하며) ‘진실에 대한 인식’에 이른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돈’과 ‘밥’의 중요성이었다. 이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그는 ‘진실에 따른 새로운 삶’ 곧 ‘경제운동’의 실천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박동혁의 이야기는 지식인 인물이 기존의 계몽적 문화 운동의 지식으로 실천해나가던 중 만난 시련들을 통해 ‘경제운동’의 필요성이라는 진실을 인식하고 그 진실에 따른 새로운 삶을 실천해나가려는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동혁이 수련을 통해 인식하는 진실이라는 대상이 개별적 자아의 인식이 아닌 자기 계급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 그리고 수련의 결과 혜택을 입을 궁극적 수혜자가 농

민 전체, 나아가 인류 전체가 된다는 점에서 박동혁 이야기의 성장구조는 노동서사에 나타나는 성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3. 순교서사 - '채영신'

채영신을 중심으로 삼은 또 하나의 서사 축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서사가 어떤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 『상록수』는 '모델소설'이며, 채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서사는 실존인물 '최용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 최용신은 기독교계 농촌운동가로서, 『샘골』에서 교육 등의 농촌사업을 하다가 과로와 병으로 1935년 1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최용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사는 『조선중앙일보』, 『중앙』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지상의 천사', '무산아동의 자모'로 칭송받았다. 최용신과 관련된 기사로는 『상록수』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사들²⁸⁾ 외에 최용신의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 세 편이 확인된다.²⁹⁾ 이 기사들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에 나타난 최용신의 전기적 사실들은 『상록수』의 채영신이라는 인물에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만 심훈이 최용신의 삶을 각색하여 채영신이라는 인물을 만들면서

28) '현대 문화 향상에 설(舌)이나? 필(筆)이나?'라는 연제의 토론대회에 최용신이 참여했다는 기사(「남녀 유학생 토론대회 개최」, 『중외일보』 1927년 8월 13일)와, 원산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최용신이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기사(「교문 나스는 재원들 원산루씨학교의 특출한 네 규수」, 『조선일보』 1928년 4월 1일; 「원산루씨여고 제2회 졸업생」, 『중외일보』, 1928년 4월 7일), 최용신이 시가 백원짜리 풍금을 옥명학원에 기증했다는 기사(「최용신 양 미거」, 『조선일보』, 1931년 11월 6일) 등이 있다. 이들 기사들은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사건화되지는 않았으나 채영신이라는 인물의 배경 및 성격을 형성하는 데 다소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29) 「수원군하의 선각자, 무산아동의 자모, 23세를 일기로 최용신 양 별세」, 『조선중앙일보』, 1935년 1월 27일; 「브나로드의 선구자 고 최용신 양의 일생」, 『조선중앙일보』, 1935년 3월 2일 4일; 노천명, 「샘수골의 천사 최용신 양의 반생」, 『중앙』, 1935년 5월.

몇 가지 부분에 변화를 준 것이 관찰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특히 채영신(최용신)이 학원을 짓는 장면에 대해 전기와 소설이 서로 다른 설명을 택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1935년 5월 『중앙』에 실린 노천명의 기사는 최용신이 “아이들과” “농민들과 가치 샘플 학술강습소를 짓게 되”³⁰⁾었다고 설명하는 반면, 심훈의 『상록수』는 오직 채영신이 몸소, 마을 사람들의 도움 없이 아픔을 견뎌가며 학원을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소설은 채영신이 일하는 현장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거들어 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67회, 1935년 11월 30일)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물론 이 장면 이후에 마을 사람들도 영신의 노력에 감동되어 일을 돕기 시작하지만, 이 또한 영신 본인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일 뿐 ‘협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변화를 주며 작가가 강조한 것은 영신이라는 인물의 영웅성인 것으로 보인다. 영신은 동혁과 달리 작품 속에서 성장하거나 변화하지 않는, ‘완성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영신도 여러 차례 시련을 만나지만, 그 시련은 영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거나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신이 기존에 갖추고 있던 자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보건대 영신의 이야기의 플롯은 성장서사보다는 영웅서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영신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영웅서사의 플롯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영웅서사의 주인공이 ‘비범한 자질을 갖춘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시련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쟁취하는 것과 달리, 영신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신앙으로 뒷받침된 극기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영신은 일반적인 ‘영웅’보다는, 이를테면 ‘종교적 영웅’ 또는 ‘순교자’에 가까운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채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의 구조를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과 맞대어본다면 이를 더욱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한국

30) 노천명, 앞의 글, 57면.

의 천주교 전래와 관련된 순교서사의 전통은 『기해일기』, 『치명일기』와 같은 순교자 전기,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편지와 같은 서신 자료 등에 나타난다. 본고는 이 중 1839년 기해박해의 순교자들에 대한 전기인 『기해일기』³¹⁾를 주로 참조하고자 한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천주교 순교자들은 성인(聖人)들의 전기를 독서하며 자라났으며, 그 성인들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 볼 만하다.³²⁾ 순교자들은 성인들의 삶의 태도, 선택, 삶, 그리고 ‘순교’에 이르는 결말까지 그대로 본받고자 했다. 그러므로 순교서사의 플롯이 보다 앞선 성인전의 플롯에 기반하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들에게 널리 읽힌 성인전 『성년광익』은 예수 강생~400년 혹은 1000년~1500년 시기의 성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다. 이 중 특히 체영신의 경우와 비교점이 될 수 있을 여성 성인전의 플롯은, 김정경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① 인물 소개 ② 수정(守貞) 결심 ③ 1차 시련 ④ 1차 시련의 극복 ⑤ 2차 시련 ⑥ 2차 시련의 극복 ⑦ 수양·극기 ⑧ 목시 ⑨ 승천 ⑩ 사후 이적(異蹟)³³⁾

『성년광익』에 등장하는 여성 성인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수정을 결심하고, 수정의 뜻을 꺾으려는 이들로 인한 시련, 관월에 의한 고문과 형벌의 시련, 또는 질병이나 마귀의 유혹과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수양하고 극기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다가 승천한다.³⁴⁾ 이들 성

31)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활판본 『기해일기』(1905)의 영인본을 참조하였다.

32)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한국교회연구』 39, 한국교회연구학회, 2017, 331면.

33)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한글본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229면.

34) 위의 글, 230면.

인들은 천주에게 선택받은 자들로서, 천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존재들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성인전을 읽으며 그 플롯을 체득한 순교자 전기의 인물들은 그 기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성인들의 삶을 자신의 이야기로 능동적으로 성취하고자 했는데, 이는 특히 순교를 향한 열망으로 나타난다.³⁵⁾ 이들에게 죽음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닌,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였던 것이다.³⁶⁾

여성 순교자들이 성인들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온 것이 ‘수정 맹세’였다. “리막다르나는 (...) 부친이 외교인과 결혼코져 허거늘 본디 슈정할 원의 잇는지라 샹히 피홀 계교를 싱각허더니 마춤 기회 잇는지라 집안 사름도 모르게 헌옷술 닙고 닙엇던 옷술 버셔 피를 못쳐 범 물어간 모양을 허고 서울 고모의 집으로 와 피신허야 동정을 보존허고”³⁷⁾, “김누시아는 (...) 십스세에 슈정할 원의 근절허야”³⁸⁾ 등 『기해일기』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 순교자들은 어려서부터 수정할 원을 가졌으며, 부모의 혼인 강요를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이들이 부모가 맺어주는 혼인을 거부한 것은 그 대상이 외교인 즉 비천주교인이기 때문이었다. 혹 남녀가 모두 천주교인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였지만 마치 형제와 같이 지내고 서로 동정을 지키는”³⁹⁾ 태도를 취함으로써 수정하고자 하기도 했으며, 이들 부부는 함께 순교의 길을 택했다.

집착에 가까운 ‘수정’의 결심은 조선에 유입된 천주교의 특성이기도 했다. 조선의 천주교 사상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 마테오 리치의 한역서학서 『천주실의』는 천주교 성직자의 독신제에 대한 옹호와 독신주의에 대한 권면에 전체 8편 중 한 편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독신이란 “자식을

35)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앞의 글, 352면.

36)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한글본 『성년광익』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앞의 글, 243면.

37) 현석문 외, 『기해일기』(활판본), 1905, 31앞면.

38) 위의 글, 38앞면.

39) 김춘배, 『순교사화집』, 성문학사, 1951, 123면.

생산하는 일을 늦추고 도리를 살리기를 급히 서둘러 이 세상의 타락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써 뜻을 삼은 것”⁴⁰⁾이며, “그 일은 지키기가 어렵기에 대체로 [사람들에게] 덕의 유무를 검증해 줄 수 있”⁴¹⁾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조선의 여성 천주교인들은 동정을 지키기 위해 과부를 거짓 자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여 결혼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⁴²⁾

정리하면, 성인전과 순교자 전기 등에 나타난 순교서사, 특히 여성 순교서사는 크게 ‘수정 맹세-시련과 극복-죽음(순교)’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는 『상록수』의 채영신 플롯이 가진 서사 구조와 동일하다.

채영신에게도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짝지어 준 혼인 대상이 있었으나, 영신은 이 결혼을 거부한다. 이는 그 대상인 김정근이 “농촌운동 같은 데는 털끝만치두 이해가 없”(38회, 1935년 10월 25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자신과 신념이 다른 상대와의 결혼을 피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여성 순교자들이 외교인과의 결혼을 거부한 것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또한 한편으로, 농촌운동에 대한 뜻이 맞는 상대인 동혁을 만나 서로 사랑을 느낄 때에도, 영신은 선뜻 이에 따라 혼인을 택하지는 않는다. 이는 영신이 “내몸 하나를 농촌사업이나 계몽운동에 아주 희생하려고 하느님께 맹세”(41회, 1935년 10월 29일)했기 때문이다. 동혁과 만나 연애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영신은 이러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영신은 “연애를 허는데 소모하는 정력이나 결혼생활을 허느라구 또는 개인의 향락을 위해서 허비되는 시간을 원통 우리 사업에 다 바치구 싫어요.”(41회)라는 말로 자신의 수정 결심을 표명한다. 교제와 결혼에 대해 영신이 계속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자 동혁은 영신에게 삼 년 동안 각자의 일터를 단단히 한 후에 결혼하자고 제안한다. 한곡리와 청석골을 후진들에게 맡긴 후 서로의 생활을 합쳐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이다. 영신도 이에는

40)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역주, 『천주실의-연구와 번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397면.

41) 위의 책, 394면.

42) 정병설, 앞의 책, 26면.

동이의 뜻을 표하지만, 끝내 동혁과 결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길에서 영신이 만나는 시련의 양상들도 순교서사에 나타나는 여성 순교자들의 시련과 유사점이 있다. 여성 순교자들에게 닥치는 시련의 양상은 공통적으로 “①육정 ②성적인 욕망 ③(고문과 형벌로 인한) 육체적 고통”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⁴³⁾ 부모나 자식에 대한 정을 이기고, 수정 맹세를 깨트리려는 성적 욕망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형벌을 받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천주를 배반하지 않아야만 순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영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시기와는 다르니만큼 그 맥락과 의미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영신 또한 이 세 가지 시련을 맞닥뜨린다.

첫 번째인 육정의 시련은 앞서 보았던 부모의 혼인 강요에 대한 거부와도 이어진다. 영신은 자신이 파견된 청석골에 뼈를 묻을 각오로 계몽사업을 하나, 영신의 모친은 영신이 고향에 내려와 정근과 혼인하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모친에게 영신은 “어머니 한분헌텐 불효하지만, 저편엔 수천 수만이니되는 장래의 어머니들을 위하지 일을 허려구 저 한몸을 바쳤스니까요. 그러는게 김정근이 하나헌테만 이살덩이를 맡기는것버덤 얼마나 거룩허구 뜻잇는 일인지 몰라요.”(73회, 1935년 12월 7일)라는 말로, 육정에 매이지 않겠음을 표한다.

두 번째인 성적인 욕망의 시련은 사랑하는 동지인 동혁과의 사이에서 나타난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직접 만나는 일은 소설 전체에 걸쳐 다섯 번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신에게 동혁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그를 따라다닌다.

「그러타. 그와 평생의 고락을 가치할 약속을 하였다. 나는그이를 이

43)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앞의 글, 349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열렬히사랑한다. 그러나 결혼을 한다고 나 한몸을 그에게 의지하려는것은 아니다. 밥을 얻어 먹고 옷을 얻어 입고 자녀를 나어주기위한 결혼을 꿈꾸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두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이 된대도 내가 할일이 따로 있다. 이 현실에 처한조선의「인테리」 여성으로서 따로히 해야만 할 사업이었다. 결혼이그사업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연애도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청상과부처럼, 「미쓰 빌링쓰」처럼 독신으로늙어야만 한다

(그러나 외로운것을 어찌하나. 이다지도 지향없이 해매는 마음을 엇다가 붓들어 맨단 말이나)

(너에게는 신앙(信仰)이 잊지안흐나. 어려서부터 하느님을 불러왔고, 그의 독생자에게서 희생(犧牲)과 봉사(奉仕)의 정신을 배웠고, 가장 어려울때에 괴로울때에, 주를 부르며 아침 저녁 기도를 올리지 안헛느냐)(100회, 1936년 1월 12일)

동혁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영신의 신앙을 흔들 만큼의 가장 큰 고뇌로 다가온다. 영신은 “우리의 일이란 관뚜껑을 덮을때까지 끝나는 날이 없을 것이니 사업올다 하고야 결혼을 하려면 백살 천사를 살어도 노총각의 서글픈 신세는 면하지못하겠군요. 조선안의 그 술현 색시들중에 「채영신」 석자만 쳐다보고 눈을 꿈벅꿈벅하고기다리는 나 자신이 못나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불상하기도 합니다.”(99회, 1936년 1월 11일)라는 동혁의 독촉 편지를 받고, 서로 만나게 된 운명까지도 저주하며 고뇌한다. 그러나 끝내 영신은 결혼을 단념시키리라 결단한다.

세 번째인 육체적 고통의 시련은 최종적으로 영신을 죽음으로 이끈 시련이다. 영신은 청석골에 학원을 짓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던 중 갈등이 생겨 일주일간 유치장에 구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본서까지 끌려가서 구류를 당하는 경과며 그 까닭은 오죽 독자의 상상에 맡길 뿐”(53회, 1935년 11월 13일)이라며 숨겨 두고 있으나, 그 과정이 매우 혹독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유치장에서 나온 후 영신의 건강이 급격히 약

화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영신은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만 끝끝내 청석골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멈추지 않는다. 영신은 “조금만 오래 섰스면 다리가 무겁고 신경이 마비가 되어 오금이 들러붙은 것처럼 떼어 놓수가 없”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질 것 같”(115회, 1936년 1월 30일)은 몸 상태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석골의 일에 몸 바쳐 뛰어드는 영신의 모습은 흡사 ‘죽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영신에게 죽음은 오히려 “내몸에넘치는 기쁨”(115회)이었던 것이다. 영신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내가 타고난 의무를 다허다가 죽으면 고만”(115회)이라고 끊임없이 죽음을 되새기며 과한 노동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이들 시련을 영신은 오직 노력과 헌신으로 극복(하려)하며, 이 시련은 영신을 강화, 단련시킨다. 그리고 끝내 영신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함으로써 거의 스스로 추구해온 것과 다름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의 순간에 영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청년들은 영신의 부탁에 따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 찬송 끝에 영신은 임종한다. 후대의 것이며 개신교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지만 『한국 기독교 순교사』에 나타나는 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의 순간에는 찬송이 삽입되어 있다. 이것이 순교서사의 공통적인 플롯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신의 죽음의 분위기를 조금 더 ‘순교자’적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영신은 또다시 기함을했다가, 그래도 무엇이 미진한듯이 헌손질을 하는데, 벽에걸린 손풍금을 가르치는것 같다. 원제는 벅큼일어나 그것을 떼어들었다. 그는일상 영신의것을 작난해보아서 곳잘뜯을줄안다.

「찬미하나 헐까요」

(…)

목청을높여 후렴을불때 영신은 열병환자처럼 몸을벌떡이르켰다. 여

리아이들 앞에서 그노래를 지휘할때처럼팔을 내젓는 시늉을 하다가
「억」

소리와함께 고개를채치고는 뒤로 덜컥 넘어졌다. (119회, 1936년 2월 5일)

② 정 장로의 몸은 날로 쇠잔해 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음 속에서 간신히 나오는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저 뵈는 천당집 날마다 가까이
내 갈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⁴⁴⁾

이처럼 채영신의 이야기는 순교서사의 구조와 유사하게, 수정(또는 비혼)을 지키고, 시련을 극복하며 단련된 끝에 죽음을 성취한다.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 내에서 죽음은 결코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마침내 달성해야 했던 목표 지점이었다. 조선 후기 천주교 신도들이 성인전을 읽으며 그들의 순교를 내면화했듯, 어쩌면 인간 ‘최용신’도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을 이어받고자 했을 것이다. 심훈의 『상록수』는 그러한 인간 ‘최용신’의 삶을 조선의 농민들을 위해 몸을 바친 ‘순교’로 그려내고자 한 일종의 문학적 순교자 전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4. 플롯의 결합 또는 결합

2, 3장에서 논하였듯 『상록수』는 박동혁을 중심으로 한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과 채영신을 중심으로 한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이 두 개의 축을 이룬다. 물론 두 플롯은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평행하게 전개되는 것

44) 김광수, 『한국 기독교 순교사』, 송원한국교회사연구원, 1979, 80-81면.

이 아니므로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동혁과 영신은 한곡리와 청석골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활동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두 인물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며 두 플롯은 계속 교차한다. 그 교차 지점에서 두 플롯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하나의 플롯이 다른 플롯에게 무엇으로 의미화되는지, 이를 통해 과연 두 플롯은 ‘결합’하는 것인지 ‘경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려 한다.

먼저, 박동혁과 채영신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부분은 박동혁의 플롯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동혁은 영신과 처음 만나는 1장 ‘쌍두취형진곡’에서부터 이어지는 작품 내내 영신을 계몽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들의 농촌 사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항상 동혁이고 영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① 「(...) 아까 백선생댁에서 허신 말씀을 듣구 이제까지 지내온걸 여간늬우치지안헛서요」

(...)

동혁은 벗석 대들어 그 소맹같은 손으로 서슴지않고 여자의 두손을 덥석잡으며

「우리 시골루 내려갑시다! 이번 기회에 공부구 뭐구 다 집어치구서, 우리의 고향을 직히러 내려갑시다! 한 가정을 붓든다느니 버덤두, 다 쓸어저가는 우리의 고향을 붓들기 위한 운동을 이르키기 위해서자, 용기를 냅시다! 그네들을 위해서 일을 허다가 죽는한이 잇드래두 선구자(先驅者)로서의 기쁨과 자랑만은 남겠지요」

영신이가 무엇에 앓질하게 취한듯이 눈을나려감고 잇는것은, 불시에 두방망이질을 하는 심장의 고통을 진정하려 함이다. (14회, 1935년 9월 26일)

② 「입때까지 우리가 현일은 강습소를 짓고 글을 가르친다든지, 무슨 회를 조직해서 단체의 훈련을 시킨다든지 하는, 일테면 문화적인 사업에 만 열중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활방면에 치중해서 생산을 하기위한 일

을 해볼 작정이예요. 언젠는 그런 생각을 못헌건 아니지만, 외면치레가 아니고 내부적(內部的)인 문제를 생각허구, 또실행해야 될줄루 생각해요」

「참 그래요. 무엇보다두 먼저 생활이 잇구서 그 다음에 문화사업이구 계몽운동이구 잇을것가태요」

영신이도 매우 동감인 뜻을 보인다. (86회, 1935년 12월 22일)

①은 1장 ‘쌍두퀴행진곡’의 마지막 회인 14회의 마지막 장면이다. 백현경의 집에서 농촌 운동에 관한 토론 모임이 있었는데, 동혁은 그 자리의 모든 사람에게 따끔한 비판을 가하고 나온다. 함께 나온 동혁과 영신은 산책하며 농촌 운동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백현경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혁은 농촌 운동에 대해 제안하고 가르치는 태도를 취하며, 그때마다 영신은 감격하고 동조하며 배우는 것처럼 보인다. 각자의 일터에서 농촌 운동이 나름의 성과를 얻은 시점인 ②에 이르러서도 그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②는 9장 ‘반가운 손님’의 마지막 회인 13회로, 동혁은 한곡리에서 농우회관을, 영신은 청석골에서 학원을 짓는 데 성공한 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다. 이때에도 동혁은 영신에게 “실제 생활방면에 치중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일”의 필요성을 논하고, 영신은 이에 동감하며 배운다.

이는 남성을 통해 여성이 성장하는 한국 노동소설의 고질적인 남녀 도체구조⁴⁵⁾ 또는 누이 콤플렉스를 떠올리게 만든다. 프로문학의 대표격으로 호명되는 한설야의 『황혼』이나 이기영 『고향』에서도 여성 인물은 항상 남성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인물들이었다. 누이-여성 인물의 성장은 오빠-남성 인물이 지탱함으로써 가능해지고, 누이-여성 인물이 고결해지는 만큼 그 배후에 존재하는 오빠-남성 인물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⁴⁶⁾ 즉

45) 장문석·이은지, 「임화의 ‘오빠’, 송영」,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13면.

46)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화사연구』 45,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1, 156면.

이러한 노동서사의 구조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주체를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 기능한다.

불완전한 지식인 인물이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은 채영신이라는 인물을 자기 플롯 내의 인물형으로 포섭하려 한다. 노동서사의 마스터플롯 내에서 재해석된 영신은 누이적인 여성 인물로서, 오직 동혁에 의해 지도받는 피동적 인물인 셈이다. 그리고 동혁은 영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반은 자살을 한 것처럼 생각”(123회, 1936년 2월 9일)하는데, 동혁에게 영신은 ‘경제운동’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실패한 인물로 남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서사의 플롯이 채영신을 자기 방식으로 재해석했듯, 순교서사의 플롯도 박동혁을 자기 자장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채영신 중심의 서사 구조에서 보았을 때 영신과 동혁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지점은 동혁의 이야기 속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첫째로 동혁은, 3장에서 보았듯, 순교서사의 플롯 속에서 영신이 이겨내야 하는 시련들 중 수정 맹세를 깨트리려는 성적인 욕망으로 기능한다. 연애와 결혼에 쏟을 힘과 시간까지 모두 농촌 운동에 헌신하고자 하나님께 맹세한 영신에게 동혁은 말로도 편지로도 계속 결혼을 보챈다. 그때마다 영신은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도 끝내 결혼을 단념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간략히 넘어가고자 한다.

둘째로 동혁은 영신에게 보다 적극적인 박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신과 동혁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지점마다 그들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혁의 이야기 구조 내에서 영신은 동혁의 지도에 순응하고 따르는 누이-여성상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바깥에는 항상 영신의 신앙에 대한 동혁의 비방, 그리고 이에 대한 영신의 방어와 신앙 고백이 존재했다.

1장 ‘쌍두취행진곡’에서 영신과 동혁이 처음으로 사업에 대한 뜻을 나누는 장면에서도 동혁은 영신의 신앙에 대해 비방하고 영신의 말을 무시

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혁에게 영신의 신앙은 “자본주의에 아침을 허는, 그따위 타락헌 종교”이며, “그버딤 더 중요한 얘기”(13회, 1935년 9월 24일)를 위해 무시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의 말에 질문 또는 반박을 하려고 하는 영신에게 동혁은 손을 들어 말문을 막아 버리기까지 한다. 이 점에서 동혁은 영신에게 계몽자가 아니라 반대자 또는 심지어 박해자에 가까워진다. 이후 질병이라는 시련을 맞닥뜨린 영신에게 동혁은 “죽두룩 일을 현상급으루 그 몫쓸병이 나게허구 그것두 부족해서 배껴정 짝게다 하느님의 덕택이지요?”(85회, 1935년 12월 21일)라는 말로 조롱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신은 그의 조롱과 비방에도 끝끝내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 하느님 참 감사허군요. 죽두룩 일을 현상급으루 그 몫쓸병이 나게허구 그것두 부족해서 배껴정 짝게다 하느님의 덕택이지요?」

동혁이도 영신을 놀리며 청석골 교회의 장로처럼 합장을하고 일부러 목소리를 떨어

「오……전지전능하신 하느님감사감사 하옵나이다」

하고는 꺄꺄꺄웃어 제친다.

(…)

영신이가 평소에 동혁에게 대한다만한가지 불평은, 저와같이 예수를 믿지안는것이다. 부모형제간에도 종교를믿는것은 절대자유요, 신앙은 강제로 할수없는것인줄 알면서도 이세상을 툭툭털어도 단지한사람인 저의 애인이, 저와똑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조홀는지 몰랐다. 믿지를 안으면 구구로가만이나 잊지를안고, 제가 밥상앞에서 눈을나려감고기도를 올릴때면 곁에서 일부러 헛기침cacac하기, 김이 무럭무럭나는 찌개남비를 코밑에다 들여대기가 일수다. 그럴때면

「저리이가서요! 자기나안믿으면 안믿었지, 왜 그러케 비방을해요?」

하고 여무지게 쏘아 부치기를 한두번 하지 안었다. (85회, 1935년 12월 21일)

이처럼 채영신의 이야기 구조에서 박동혁은 수정 맹세를 깨트리려는 유혹과 신앙에 대한 박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시련으로 자리매김한다. 영신은 이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끝내 죽음을 성취한다. 동혁에게 영신의 죽음은 ‘자살’로 의미화되는 ‘실패’였으나, 영신의 이야기 속에서 영신의 죽음은 ‘순교’라는 의미의 ‘성공’이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 두 플롯은 서로를 자신의 플롯으로 포섭하여 전체 서사를 하나의 플롯으로 결합하려 한다. 그러나 끝끝내 두 플롯은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화해하지 않으며,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마다 경합하며 서로를 재해석할 뿐이다. 두 플롯은 각각의 플롯 내에서 완결성을 가진다. 두 플롯 사이에 우열을 가려 어느 하나를 택하려 하는 순간 나머지 플롯은 해석될 수 없는 균열로 남는다. 서로 교차하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길을 가는 두 플롯의 긴장이 『상록수』를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일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상록수』를 단일한 의미를 갖는 농촌계몽소설로 보아 온 기존의 텍스트 이해가 텍스트의 이중적인 플롯의 견제와 대립을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로 보고, 그 이중 텍스트 구조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박동혁의 서사와 채영신의 서사는 각각 서로 다른 마스터플롯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결코 합치되지 않는 상태로 결말을 맞는다.

박동혁의 서사는 염군사, 카프 등의 프로문학에 뿌리를 두는 노동서사의 구조를 가진다. 이는 시련을 통해 계급적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인식을 얻는 노동자 또는 지식인의 성장구조이다. 동혁은 영신의 입원, 건배의 배신, 동화의 방화, 영신의 죽음 등의 시련을 겪으며 거듭해 ‘밥’의 중요성이라는 진실을 깨닫고 ‘경제운동’에 대한 인식을 얻음으로 새로운 운

동의 전망을 획득한다. 동혁의 구조하에서 영신은 동혁에게 지도받는 대상으로서의 누이-여성애 불과하다.

채영신의 서사는 천주교 성인전에 뿌리를 두는 『기해일기』 등의 순교서사의 마스터플롯과 유사점이 있다. 수정 또는 비혼을 추구하며 시련을 극복하여 단련하고 그 끝에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성취하는 것이 그 구조이다. 영신은 동혁과의 사이에서 끝내 결혼하지 않고, 공권력의 압박, 부모의 혼인 강요, 자신의 질병, 그리고 동혁의 신앙 비방 등의 시련을 견뎌내고 끝내 죽음을 맞는다. 영신의 구조하에서 동혁은 영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박해자로 존재하게 된다.

『상록수』는 이처럼 박동혁과 채영신의 이질적인 텍스트를 겹쳐놓고 서로 경쟁하고 부딪치게 만든다. 작가는 교묘하게 이를 박동혁의 승리로 해석되게끔 마지막 장을 봉합해놓은 듯 보인다. 그러나 『상록수』를 읽은 감상자들의 눈에 결국 남아 아른거리는 이미지가 작은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글을 가르치는 채영신과 담에 매달려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며 소리 높여 한글을 배우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것을 오독이라 할 수는 없다. 박동혁이, 심훈이, 그리고 이를 읽는 해석자들이 아무리 채영신을 패배자라고 말하더라도, 『상록수』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채영신의 플롯은 헌신 끝에 죽음을 쟁취해낸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박동혁의 이야기 속으로 매끄럽게 합치되지 않는 채영신이라는 균열이 끊임없이 채영신의 텍스트의 구조를 분출하고 있는 것은 채영신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최용신’이라는 실존 인물의 생명력, 또는 순교서사의 플롯의 생명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심훈, 『상록수』(연재본), 『동아일보』, 문학사상사, 1935년 9월 10일-1936년 2월 15일.

김광수, 『한국 기독교 순교사』, 송원한국교회사연구원, 1979.

김춘배, 『순교사화집』, 성문학사, 1951.

현석문 외, 『그희일기』(활판본), 1905(1986년 영인본).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 『중외일보』

2. 단행본

백철, 『新文學思潮史』, 신구문화사, 1986.

유기환, 『노동소설, 혁명의 요람인가 예술의 무덤인가』, 책세상, 2003.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성사, 2010.

마테오 리치, 송영배 외 역주, 『천주실의-연구와 번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3. 논문

구수경, 「沈熏의 「상록수」考」, 『어문연구』 19, 어문연구학회, 1989, 435-449면.

김경연, 「1930년대 농촌·민족·소설로의 회유(回遊) - 심훈의 『상록수』론」, 『한국문학논총』 48, 한국문학회, 2008, 193-223면.

김정경, 「조선 후기 천주교 성인전 연구-한글본 『성년광의』에 나타난 기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223-252면.

김정경, 「조선후기 천주교 성인전과 순교일기의 비교 연구」, 『한국고전연구』 3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329-365면.

류양선, 「《상록수》론」, 『한국현대문학연구』 4, 한국현대문학회, 1995, 7-34면.

서영인, 「프로문학의 자기반성과 여성의 타자화」, 『민족문학사연구』 4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137-165면.

유진월, 「심훈의 저항과 계몽, 이용후생의 한 방식」, 『우리문학연구』 69, 2021, 491-514면.

이동길·남상권, 「심훈의 장편소설 『상록수』 연구-계몽과 탈선의 의미화: 집짓기 모터

브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66, 우리말글학회, 2015, 289-317면.

장문석·이은지, 「입화의 '오빠', 송영」, 『한국학연구』 3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01-235면.

최은혜, 「식민지 사회주의 농촌소설에서의 주체와 공동체-『고향』과 『상록수』 겹쳐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85, 2021, 221-258면.

<Abstract>

The Competition of the Labor Narrative
and the Martyrdom Narrative in
Shim Hoon's *Sangnoksu*

Lee, Ga-Eun

Shim Hoon's *Sangnoksu* consists of the intersection of two narrative plots each centered on Park Dong-hyuk and Chae Young-shin. Park Dong-hyuk's narrative follows the masterplot of the labor narrative, which is the growth narrative of workers or intellectuals who realize the class consciousness and gain new recognition through ordeals. According to the masterplot of the labor narrative, Chae Young-shin's death acts as an ordeal for Park Dong-hyuk to grow. Chae Young-shin's narrative follows the masterplot of the martyrdom narrative, which tries to keep chastity or non-marriage, overcomes ordeals, and achieves the glorious death of martyrdom at the end. In terms of the masterplot of the martyrdom narrative, Chae Young-shin's death is a goal point of martyrdom. The two plots do not "combine" into a single story, but rather "compete". Each plot reinterprets the other plot to itself's own, but either leaves a crack that does not perfectly fit into one.

Key words: Shim Hoon, *Sangnoksu*, labor narrative, martyrdom narrative, masterplot

투 고 일 : 2022년 5월 14일

심 사 일 : 2022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6월 20일